

1920년대 「京取」의 經營變動과 關聯機關들의 動向

洪性讚

일제의 한국강점 정책은 한국의 '利源'을 개발하여 수탈을 극대화하는데 궁극적 목표가 있었다. 그런데 수탈을 위한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다. 이에 일제는 개발자금의 효율적 동원과 배분을 위해서 일찍부터 간접금융을 담당할 은행을 정비한 바 있고, 1920년에는 그 연장선에서 직접금융을 담당할 한국 최초의 조직화된 증권시장으로서 京取, 즉 京城株式現物取引市長(株)을 설립하였다. 본 논문은 이렇게 설립된 京取와 그 관련기관들—京城證券信託(株), 仲買人組合 등—이 그 후 京取가 仁川米豆取引所와 합병하여 朝鮮取引所로 개편(1932)될 때까지 한국과 일본의 경기변동, 證市동향, 證市정책 변화 등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변모하여 갔던가를 살펴본 것이다.

I. 序 言

日帝는 한국을 일본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시켜 그 '利源'을 開發하고 收奪을 극대화하는 데에 강점정책의 기본목표를 두었다. 그런데 수탈을 위한 이러한 정책에는 막대한 資金이 소요되었다. 이에 일제는 강점직후부터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일반은행 등으로 연결된 은행제도를 정비하여 間接金融 체제를 정비하였고, 1920년 8월에는 한국 유일의 證券市場 證券去來機關으로서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株)을 開場하여 開發·拓殖資金의 동원을 위한 直接金融 체제를

구축하였다. 19세기 말부터 증권거래소를 설립하여 大衆資本을 동원해 왔던 일제는 1920년대 초에 일본의 東京株式取引所(東取), 大阪株式取引所(大株)를 頂點으로 하여 중국의 安東株式商品取引所(安取), 大連株式商品取引所(連取), 奉天取引所(奉取), 上海株式取引所(上取)와 한국의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 등으로 연결된 東아시아 全域에 걸친 방대한 證市網·資本市場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것이다.

이에 그 동안 학계는 일제하의 開發·拓殖資金 동원체제를 해명하고, 나아가 한국경제가 일본제국주의의 東아시아 지배구조와 資本的·金融的으로 어떻게 連動하며 變貌하여 갔던가를 밝힌다는 목표아래 일제하의 金融市場, 특히 銀行과 證券市場의 역사에 주목하였고 그 결과 많은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證券市場史와 관련해서는 근자에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1920~1931, 이하 京取), 朝鮮取引所(1932~1943), 朝鮮證券取引所(1943~1945)를 다룬 논고가 나와 그 윤곽이 상당히 밝혀졌다.¹⁾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사를 토대로 1920년 8월에 開場했던 京取와 그 關聯機關들, 예컨대 京取 산하의 京城證券信託(株), 仲買人組合, 그리고 京取 주변의 여타 證券信託會社들이 1932년 1월에 京取와 仁川米豆取引所(仁取)가 합병하여 朝鮮取引所로 개편될 때까지²⁾ 한국과 일본의 景氣변동, 證市동향, 證市政策 변화 등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變貌 推移하여 갔던가를 검토하려고 한다.³⁾ 말하자면 일제 강점기에 한국경제를 根底에서부터 틀어쥐고 있던 일본자본주의가 1920년대의 慢性不況·全般的 危機의 시기를 거쳐 1930년대에 國家獨占資本主義 단계로 급속하게 移行해 간 가운데, 한국의 증권시장이 일본자본주의의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또 이와 連繫 連動하면서 어떻게 推移하여 갔던가를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과제이다.

1) 李炯眞 [13] [14], 洪性讚 [15], 李明輝 [12]. 이에 앞선 연구는 中村郁 [24], 朝鮮取引所 [22], 金周龍 [10].

2) 仁取는 秋山滿夫 [26], 김도형 [8]. 京取와 仁取의 합병은 李炯眞 [13], 朝鮮取引所 [22], McNamara [28] pp. 141~164, 李明輝 [12].

3) 필자는 앞서 京取의 설립과정을 검토한 바 있다. 洪性讚 [15]. 본 논문은 그 후 京取가 仁取와 합병하여 朝鮮取引所로 개편될 때까지의 변동과정을 다룬 글로서 앞의 글의 續編에 해당한다.

사실 1920년대에는 한국경제의 규모와 수준이 열악하여 자본금〔公稱〕 50만 圓 이상의 上場자격을 갖춘 주식회사가 많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구조가 需要追從型(demand following type)이 아닌 供給先導型(supply leading type)의 양상을 띤 가운데, 4) 일제가 조선은행·조선식산은행 같은 국책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低利의 '開發·拓殖' 자금을 공급하는 間接金融 위주의 정책을 폈던 까닭에 京取를 통한 直接金融 조달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증권시장(京取)에 대한 검토는 한국근대금융사를 계통적으로 정리하는 데에서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先行의 작업이 아닐 수 없다.

II. 1920년 開場初의 去來不振과 浮揚策

1920년 8월 14일 京取가 자본금 300만 圓의 株式會社로서 開場했을 당시에 한국의 증권시장은 극도의 침체기였다. 그 해 3·4월부터 시작된 反動恐慌의 여파로 實物景氣가 위축되고 金融梗塞이 계속된 때문이었다. 5) 이에 京取는 開場 當日에 오전의 前場만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7개 會社의 37種 주식 3,040株가 거래되는 상황을 보였으나 6) 곧 침체로 돌아서 8월 내내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그리고 9월에도 하루 평균 거래량이 1,100주에 불과하고 출입자도 하루 200~300명에서 20~30명으로 감소하여 경취가 곧 閉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 전망까지 나올 정도였다. 7) 10월과 11월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4) 尹錫範·洪性讚·禹大亨·金東昱 [11] p. 302.

5) 이 시기 京取株의 株價變動만을 보아도 反動恐慌 이전에는 2원 50전의 株式請約代金만이 납부된 상태였던 權利株의 가격조차 1株에 41원, 42원을 呼價하였으나, 반동공황 후에는 1주당 12원 50전이 납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4월 10일 38원, 4월 20일 30원, 開場 직전인 8월 13일 24원 50전으로 계속 떨어졌다. 洪性讚 [15], 동아일보 1920. 8. 14. 당시에는 日本의 株價指數(1914. 7 = 100)도 1920년 1월의 평균 251에서 3월 225, 4월 166, 5월 149, 6월 113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반동공황을 전후한 시기의 日本의 주요 經濟指標은 梶西光速·加藤俊彦·大島清·大內力 [23] pp. 26~27.

6) 거래내역은 中村郁 [24] pp. 20~22.

7) 매일신보 1920. 8. 17, 8. 19~20, 8. 24~25, 8. 2, 동아일보 1920. 8. 22, 9. 8.

〈표 1〉 京取의 主要 去來株(1920. 8~1922. 11)

(단위: 株)

연월	종목별 去來株
1920. 11	京取株 76,468(76.0%), 殖銀新株 4,253, 實銀株 2,285, 殖鐵株 1,942, 安信株 1,820, 東亞新株 1,750, 仁取株 1,125
1921. 5	京取株 832,502(60.8%), 安取株 127,275, 京信株 113,690, 大株新株 96,080, 朝紡 30,487, 東亞新株 25,227, 殖銀新株 20,030
1921. 11	京取株 1,327,024(56.7%), 安取株 306,947(13.1%), 大株新株 208,010, 京信株 176,530, 東亞新株 106,435, 朝紡株 55,300
1922. 5	京取株 585,721(36.6%), 安取株 512,190(32.0%), 奉信株 124,790, 京信新株 107,423, 東亞新株 42,900, 大株新株 38,350, 仁取新株 26,510
1922. 11	京取株 581,732(56.8%), 安取株 109,780(10.7%), 仁取新株 93,690, 大株新株 69,830, 京信新株 59,657, 奉信株 15,770, 京現新 10,425

자료: 中村郁, 『株式會社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沿革誌』, 株式會社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 1923, pp. 80~85. 殖銀 = 朝鮮殖産銀行, 實銀 = 朝鮮實業銀行, 殖鐵 = 朝鮮殖産鐵道, 安信 = 安東證券信託, 東亞 = 東亞煙草, 朝紡 = 朝鮮紡織, 奉信 = 奉天取引信託, 京信 = 京城證券信託, 京現 = 京城現株信託. 新은 新株를 말함. 株數는 3日去來, 週間去來, 短期去來를 모두 합한 것임. ()안은 京取에서 거래된 總株式 대비로서 그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만 표기함. 安信, 東亞, 安取, 大株, 奉信을 빼고는 모두 한국에 本店을 둔 회사였음.

경취의 제1기(1920. 8~1920. 11) 거래량은 모두 10만 609주(하루 평균 1,156주)에 불과하였다. 京取가 개장되기 전인 1910년대에 서울의 證券商들이 증권 거래를 위해서 京城有價證券現物問屋組合⁸⁾을 조직하여 그 기능을 대신하였던 때에도 하루 평균 2,000~3,000주가 거래되었으니 엄청난 침체였다. 특히 제1기에 去來된 株式 59종⁹⁾ 가운데 1,000주 이상이 거래된 종목은 7종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전체 거래주식의 76.0%는 京取株 그 자체였다(〈표 1〉 참조).¹⁰⁾ 京取

8) 洪性讓 [15].

9) 제1기에는 이밖에도 公債 51매, 社債 15매가 거래되었다. 中村郁 [24] pp. 80~84. 1922년 5월까지 京取에 上場되었던 株式種目과 종목별 去來量은 中村郁 [24] 참조. 한편 『京取第1回營業報告書』(이하 경취의 영업보고서는 횡수만을 밝혀 『제1회』 등으로 표기함)에는 京取株 外의 주식 62種과 5分利公債를 비롯한 6種의 公債와 社債가 거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中村郁 [24]의 수치와 차이가 생긴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10) 日證별로는 京取株를 포함한 仁取株, 東取新株(30주), 大株新株(60주), 上取株(270주), 連取

는 거래량이 작아 有價證券의 標準價格 決定機關이라는 본래의 기능조차 다하지 못했던 것이다.

京取가 개업 초에 부진을 면치 못했던 데에는 去來制度의 결함도 큰 몫을 하였다. 京取는 일반시장을 규율하는 법규였던 ‘市場規則’에 의거하여 설립된 유가증권의 現物去來市場으로서 정식 去來所法[取引所法]에 의해서 설립된 증권거래소가 아니었다. 따라서 거래방식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다. 受渡[決済] 期間은 3일로 한정되었고 現物去來와 相對賣買에서도 벗어나지 못하였다. 모든 거래는 거래쌍방이 계약 후 3일 내에 現物[株式]과 代金を 각각 경취에 제공하고 受渡決済를 마쳐야만 비로소 종료되었다[實物決済]. 投機抑制를 내세워 유가증권의 轉賣·還買[反對賣買]와 差金決済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開場 전부터 거래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왔던 京取의 仲買人들은 개장 후 침체가 거듭되자 이를 더욱 강하게 주장하였다.¹¹⁾ 우선 이들은 受渡期間의 延長을 촉구하였다. 京取가 한국 유일의 증권시장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려면 지방 거주자는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의 증권거래소들과도 連繫하여 去來해야 하는데, 受渡期間 3일로는 去來할 株式를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京取로 옮기는 일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京城有價證券現物問屋組合 시절에도 受渡期間은 20일이었고 이는 일본의 商價習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온 기간이므로 차제에 受渡期間을 1개월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중매인들은 現物去來와 相對賣買에도 이의를 제기하였다. 수도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늘려 그 기간 내에는 株式의 轉賣와 還買를 허용하고, 결제도 轉賣와 還買한 차액, 즉 賣渡額과 買收額을 상쇄한 差額만을 지불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경취가 株價의 公定決定機關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려면 우선 거래량이 많아야 하고, 거래량을 늘리려면 空賣買[假需給]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轉賣 還買와 差金

株(50주) 등 去來所株가 전체의 77.5%를, 殖銀新株, 實銀株, 殖銀株(901주), 朝鮮銀行新株(889주), 漢城銀行株(401주), 朝鮮銀行株(208주), 朝鮮商業銀行株(170주), 朝鮮商業銀行新株(105주), 漢城銀行新株(30주), 韓一銀行株(10주) 등 銀行株가 전체의 9.2%를 겸하여 두 業種의 주식만으로도 86.7%가 되었다. 거래가 이 두 업종의 株式에 편중된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표 1〉, 中村郁 [24] pp. 80~85 참조. 증권시장[取引所]에서 東取株, 東取新株 등 去來所 자체 株式이 집중적으로 거래되기는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11) 매일신보 1920. 8. 13, 8. 20, 8. 25.

決濟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매인들은 京取가 일본의 증권거래소들처럼 중매인의 受渡不履行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완전 배상하여 줄 것도 요구하였다. 또한 場外賣買의 허용과 證據金·手數料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고, 특히 이상의 요구들을 관철시키려면, 京取가 일본의 증권거래소들처럼 市場規則에 의거하여 설립된 현물시장이 아닌 이른바 거래소법[取引所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식 證券去來所로서 승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운동도 벌였다.¹²⁾

京取와 총독부는 당초 중매인들의 이러한 요구에 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현물시장인 경취로서는 이를 수용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고, 현재의 거래부진은 거래제도의 결함이 아닌 不況 때문이며, 수도기간을 늘려 定期去來(受渡期間 3개월)나 延去來(수도기간 2일 내지 50일)를 실시할 경우에는 京取도 仁取처럼 투기장이 되고 말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¹³⁾ 그러나 證市의 오랜 침체는 우려할 사태가 아닐 수 없었다. 이에 경취는 중매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920년 9월 7일에 受渡期間을 1개월로 늘려 달라고 총독부에 정식 요청하였고, 총독부는 11월 19일에 원격지 주문에 한하여 수도기간을 15일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12월부터 실시하도록 하였다.¹⁴⁾ 그리하여 경취는 총독부가 인가한 受渡期間 15일을 다시 2期로 나눈 후, 週間去來라는 이름아래 이를 '今週中去來' [當限]와 '來週中去來' [先限]로서 각각 立會하였다.

한편 경취는 開場직후부터 중매인에게 日步 3錢 5厘(年利 12.8%)로 受渡資金을 대여하기로 하였고,¹⁵⁾ 그 후에는 朝鮮商業銀行, 朝鮮實業銀行¹⁶⁾과 교섭하여 거래가 부진한 國內株에 한하여 10월 2일부터 1만 원 한도의 受渡資金을 융통하기로 하였다.¹⁷⁾ 그리고 11월에는 총독부에 賣買手數料와 委託手數料의 인하를 청원하였다.¹⁸⁾ 이상의 證市浮揚 정책에 힘입어 거래량은 10월의 2만

12) 매일신보 1920. 8. 17, 8. 20, 中村都 [24] pp. 51~65.

13) 매일신보 1920. 8. 25, 9. 1.

14) 매일신보 1920. 9. 1, 10. 2, 『제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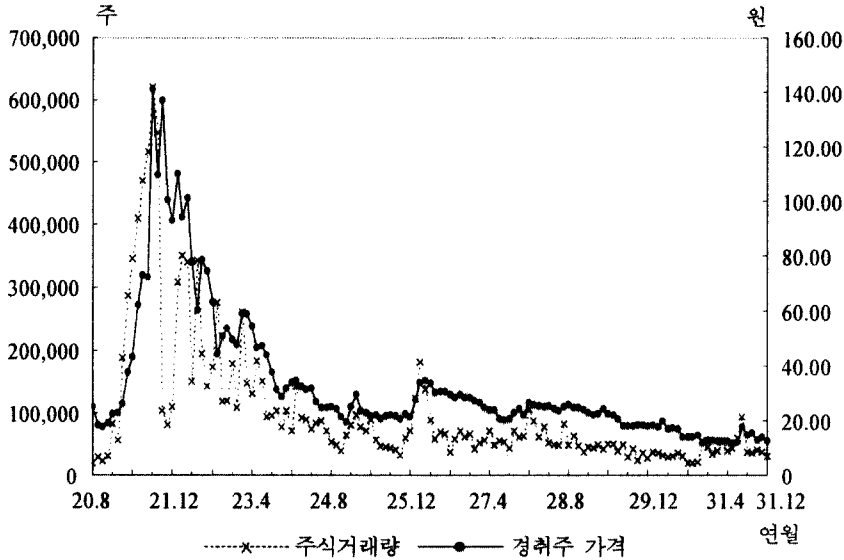
15) 매일신보 1920. 8. 30.

16) 實銀은 당초 京取의 機關銀行格으로 설립된 까닭에 다른 은행들보다 株式金融에 치중하였다. 洪性讚 [16].

17) 매일신보 1920. 10. 10.

18) 이는 1921년 1월 17일에 승인받았다. 『제1·2회』. 1920년대 초의 수수료 개정 내역은 中村都 [24] p. 87.

〈그림 1〉 京取에서의 주식거래량과 京取株 가격의 변동



자료: 『제1~23회』, 朝取株式研究會, 『朝取』, 1939. 총거래량은 3日去來(1920. 8~11), 週間去來(1920. 12~1923. 2), 長期去來(1923. 3~), 短期去來(1923. 5~), 當日去來(1925. 6~)를 모두 합한 것임. 京取株 가격은 東亞日報, 毎日申報의 주식시세표에서 매일 15일에 가장 근접한 날의 株價(今週物 後場 마감 기준)임. 단, 1921년 10월은 長期休場에 들어가기 직전인 10월 4일 前場의 마감가격임.

1,893株(하루 875株)에서 11월에 3만 590주(하루 1,275주)로 늘었고, 특히 週間去來를 개시한 12월에는 8만 3,394주(하루 3,791주)로 증가하였다(〈그림 1〉 참조).

Ⅲ. 1921년의 過熱과 證市波動

1. 京城證券信託會社の 설립과 短期去來 개시

京取는 1921년 초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거래량이 1월의 5만 6,598주에서

2월에 18만 8,473주, 3월에 28만 6,027주로 급증하였고, 그 동안 場勢를 주도해 왔던 京取株의 가격도 같은 기간에 22원, 26원, 37원대로 상승하였다(〈그림 1〉 참조).¹⁹⁾ 반동공황으로 침체했던 일본경제가 다소 회복되면서 大阪株式取引所 등 일본 證市가 활기를 띠는데다 국내의 증권경기도 살아난 때문이었다.²⁰⁾ 특히 이 시기에는 오랜 경기침체로 資金需要가 줄고 遊休資金이 늘어 金利가 하향세를 보였으므로 자금이 證市로 몰렸다.²¹⁾ 여기에 더하여 당시 京取는 去來制度의 개선과 관련한 중요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주지하듯이 證市の 운영에는 有價證券의 取得資金을 대여하고, 증권을 擔保로 대출하는 등 有價證券의 發行과 流通을 원활하게 하여 줄 證券金融機關의 설립이 필수적이었다. 사실 당초 경취는 일종의 機關銀行으로서 朝鮮實業銀行을 설립하여 그러한 기능을 맡길 예정이었으나 반동공황의 여파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시에는 그러한 증권금융기관을 가지지 못하였다.²²⁾ 이에 경취 안팎에서는 일찍부터 증권금융기관의 설립을 촉구하는 소리가 높았다. 1920년 8월 말에는 京取의 常任監査役 芳林徹이 仲買人들의 공동출자으로써 共同清算所를 설치하여 受渡決濟에 필요한 주식을 貸與하자고 제안하였고, 10월 초에는 京仁지역의 일본인 유력자였던 和田常市, 末森富良, 吉田秀次郎, 小杉謹八, 古城梅溪, 篠崎半助, 佐野彦藏, 矢澤近次郎 등이 證市の 활성화를 위하여 現物出資 방식으로 京城證券信託商會(株)를 설립하여 受渡決濟에 필요한 有價證券과 金錢을 貸借하고 有價證券信託業도 경영하자고 제안한 터였다.²³⁾

이러한 움직임에 京取도 적극 대응하였다. 1920년 12월에 열린 京取의 중역회와 주주총회는 이런 기능을 담당할 증권신탁회사의 설립을 기정 사실화하였고, 1921년 1월에는 그 해 3월 말이나 4월까지 경취가 창립주식의 상당량을 인수하고 창립중역의 상당수를 파견하여 京城證券信託株式會社(이하 京信)를 자

19) 京取는 株式會社組織이었다. 따라서 京取株의 가격은 證券去來가 활발할 때 오르고 부진할 때에 떨어졌다. 證市상황을 잘 반영해 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 것이다. 以下에서 한국의 證市動向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京取株 가격을 수시로 언급한 것은 이 때문이다.

20) 동아일보 1921. 2. 28.

21) 동아일보 1921. 2. 22, 2. 26, 2. 24, 3. 5.

22) 洪性讚 [15] [16].

23) 매일신보 1920. 8. 25, 10. 11, 洪性讚 [15].

會社로서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京取의 사장, 전무, 취체역, 중매인을 포함한 16명으로써 京信의 發起人會를 구성하고 전무 天日常次郎을 京信의 사장에 내정하였다.²⁴⁾ 그런데 당시 경취는 京信에 증권금융 업무만을 맡길 생각이 아니었다. 1920년 12월부터 실시한 週間去來(今週物·來週物 거래)에 더하여 차제에 '市場振興' 방안으로서 京信을 매개로 翌日渡의 短期去來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²⁵⁾

당시 경취가 계획한 短期去來(일명 直去來)란 원래는 매매쌍방이 계약 다음날(翌日)까지 주식과 대금을 경취에 제공하고 受渡를 마쳐야 하는 現物去來였지만, 어느 한 쪽이든 翌日受渡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쌍방 협의아래 京信에서 株式과 代金を 貸與 立替받아 수도결제를 마치고,²⁶⁾ 그 때 발생한 仲買人과 京信 사이의 貸借관계는 추후 당사자끼리 결제하도록 허용한 제도였다. 따라서 중매인들은 이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京信과 체결한 貸借契約를 수시로 갱신하고²⁷⁾ 그 사이에 해당 주식을 轉賣 還買하여 差額만 決濟할 수 있었으므로, 비록 명색은 현물거래였지만 사실은 定期去來[清算去來]의 성격을 가졌다.²⁸⁾ 경취는 京信을 설립하여 증권거래, 특히 단기거래 실시에 따른 각종의 計算업무와 金錢 및 株式의 貸付업무를 대행시킴으로써 現物市場의 틀 안에서 오랜 숙원이던 轉賣·還買와 差金決濟를 실현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목표아래 추진된 京信의 설립은 1921년 2월 이래의 好況場勢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경취는 경신의 창립주식 2만 주(자본

24) 매일신보 1920. 12. 5, 12. 27, 1921. 1. 17, 中村資良 [25] 1921년판, pp. 33~34.

25) 매일신보 1921. 1. 17.

26) 이 경우 京信은 代金이나 株式을 立替·貸與받은 측에서 일종의 延滯料인 (順)日步와 逆日步를 징수하되 證市가 과열되면 立替金을 줄이거나 日步를 인상하고, 침체하면 立替金을 늘리거나 일보를 引下함으로써 證市安定을 도모하였다. 證據金도 마찬가지로 이용되었다. <1923. 12. 18. 朝鮮總督府殖産局起案. 株式會社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ニ於テ同社株式ヲ短期去來ニ上場スルノ件> (이하 <1923. 12. 18. 短期去來>로 표기). 이는 『檀紀4253~4263년 商工甲種記錄 第8號 京取定款營業細則變更書類』에 들어 있다. 이하 인용할 公文書들도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여기에 포함된 것들이다.

27) 이런 까닭에 短期去來는 실제 운용과정에서 '萬年去來'라는 비난도 받았다. <1923. 12. 18. 短期去來>.

28) 金周龍 [10] pp. 213~217. 이하 이 시기의 證券用語에 대한 설명은 별도의 註가 없는 한 金周龍 [10], 向井鹿松 [27] 참조.

금 100만 圓) 가운데 1/3인 6,670주를 인수하고 증역의 대부분을 직접 파견하였으며,²⁹⁾ 3월에 제1회 자본금 납입(25만 원)을 마쳐, 4월 10일 창립총회를 열고, 4월 28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³⁰⁾ 경취도 준비에 나섰다. 단기거래의 立會를 週間去來보다 10분 내지 20분 먼저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4월 28일부터 매일 10분씩 手振〔立會〕練習을 하였다. 그리고 단기거래에 上場할 주식 7종(京取株, 安取株, 大株新株, 滿蒙毛織株, 朝鮮紡織株, 大日本製糖株, 鐘淵紡績新株)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證據金도 각각 확정하였다.³¹⁾

京信도 立替金 확보를 위하여 朝鮮實業銀行, 朝鮮商業銀行과 교섭한 후 이 들로부터 再割引擔保貸出을 받기로 하였고, 4월 28일까지 豫納金(2,000원)을 낸 仲買人에 한해서 京取株는 500주, 기타 주식 6종은 100주 범위에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였다.³²⁾ 단기거래는 5월 7일 後場부터 시작되었다.³³⁾ 京信도 이날부터 단기거래에 따른 計算업무와 株式·代金の 貸付업무(代引·代渡 업무) 등을 개시하였다.³⁴⁾

29) 1921년 10월 현재 주주는 총 129명, 대주주는 京取(6,670주), 高橋久吉(800주), 長谷亨(240주)과 받기인 26명(각 200주 소유) 등이다. 창립증역은 사장 天日常次郎(취체역: 경취의 직책으로서 이하 같음), 취체역 峯尾番三郎(전무), 末森富良, 川崎良太郎(중매인), 白漣洙(받기인), 監査役 釘本藤次郎(사장), 田中友吉(중매인), 古城梅溪 등이다. 中村資良 [25] 1921년 판, pp. 33~34, 洪性讚 [15].

30) 매일신보 1921. 3. 2, 3. 10, 동아일보 1921. 3. 2, 3. 10, 3. 20, 4. 12.

31) 동아일보 1921. 4. 18, 4. 28, 4. 11, 5. 7. 경취는 1921년 6월 30일에 國內株의 거래촉진을 내세워 그 동안 거래가 부진했던 安取株, 日糖株, 鐘新株를 단기거래 종목에서 빼고 대신 仁取, 東亞煙草新株, 東拓新株를 추가하였다. 매일신보 1921. 6. 30. 증거금이란 일종의 契約履行保證金으로서 本證據金, 追證據金, 增證據金 등 세 종류였는데, 本證은 신규매매 때 매매쌍방에서 징수한 定規의 증거금이고, 追證은 株價 變動幅이 本證의 半을 넘을 때 손해를 당하게 된 측에서 임시징수한 것으로서 時勢 회복 후 반환하였다. 增證은 일종의 追證으로서 매매쌍방에서 징수했는데 受渡擔保로서 受渡期日 며칠 전에 징수한 定時增徴과 시세변동폭이 클 때 징수한 臨時增徴이 있었다. 경취가 단기거래 개시와 더불어 1주당 鐘新 30원, 京取·大新 10원, 日糖 6원, 安取 4원, 朝鮮·滿毛 2원의 증거금을 정한 것은 本證據金이었다.

32) 동아일보 1921. 4. 18, 4. 28.

33) 단기거래 개시 후 이듬해 5월까지의 종목별 단기거래 내역은 中村郁 [24] pp. 80~84.

34) 中村郁 [24] pp. 29~30. 代引은 京信이 買入者를 대신하여 株式을 代理引受하는 것이고, 代渡는 賣渡者를 대신하여 株式을 代理引渡하는 것이다.

2. 過熱과 關聯機關들의 動向

1921년 5월에 短期去來를 개시하자 京取의 거래량은 더욱 늘었다. 특히 5월에는 은행, 철도, 제조업 분야의 國內株 수입 종과 주요 日本株式의 株價가 상승하였고, 京取株, 京信株, 安取株, 大新株, 朝鮮紡織株, 東亞煙草新株, 殖銀新株, 滿蒙毛織株 등을 중심으로 거래량도 크게 늘어 그 달에만 무려 40만 9,874주가 거래되는 호황을 누렸다. 하루 평균 적게는 1만 주, 많게는 2만 8,000~2만 9,000주가 거래된 것이다.³⁵⁾ 그리하여 제2기(1920. 12~1921. 5)의 거래량은 총 132만 3,012주로서 제1기의 무려 13배나 되었다. 업종별로는 去來所株가 78.5%로서 제1기에 이어 압도적 비중을 점하였고, 다음이 信託株 8.5%로, 이 두 업종의 株가 전체 거래량의 87.0%를 점하였으며, 주요 去來株도 대부분 이 두 업종에서 나왔다(표 1) 참조.³⁶⁾

호황은 제3기(1921. 5~11)에도 계속되어 그 해 10월 초까지 이어졌다(그림 1) 참조. 일본에서는 일시적으로 中間景氣를 맞았으나 警戒心理 때문에 신규 사업 확대가 부진하여 자금이 證市로 몰렸고, 한국에서도 鐵道營業線 延長工事 진척에 따른 기대심리로 市中遊資가 鐵道株로 몰리면서 주가를 올렸다.³⁷⁾ 게다가 경취는 國內株 거래를 촉진하여 전체 거래량에서 경취주와 경신주의 거래량이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던 비중을 줄이려는 의도아래 '地株[國內株]賣買獎勵金'을 교부한 바 있고,³⁸⁾ 중매인들도 延去來(거래기간 1개월) 실시를 청원하고

35) 『제2회』, 中村郁 [24] p. 77. 거래내역은 中村郁 [24] pp. 80~85. 하루 평균으로는 주간거래 1만 3,972주, 단기거래 2,300여 株가 거래되었다.

36) 去來所株의 내역은 京取株, 安取株, 大株新株, 仁取株(7,686주), 上取株(7,390주), 東取新株(3,980주)이고, 信託株 내역은 京信株, 安信株(2,190주)이다. 자세한 사항은 〈표 1〉, 中村郁 [24] pp. 80~85 참조.

37) 『제3회』.

38) 1921년 6월 1일부터 朝鮮中央鐵道株(中鐵), 西鮮殖産鐵道株(殖鐵), 朝鮮實業銀行株(實銀), 殖銀新, 朝鮮土地株(朝土), 朝鮮電氣興業株(電興) 등에 매매장려금을 교부하였고, 6월 9일에는 商銀, 漢銀, 韓銀, 京城電氣新株(京電新), 中鐵, 朝鮮煙草株(朝煙), 滿鐵新(이상 제1종), 商銀新, 朝鮮製紙(朝紙), 實銀, 漢銀新, 東拓新, 朝土, 朝紡, 西鮮殖産鐵道株(西鐵), 電興(이상 제2종) 등으로 확대하였다. 『제3회』, 中村郁 [24] pp. 68~70, 동아일보 1921. 6. 5, 매일신보 1921. 6. 13.

거래소 승격문제를 거론하는³⁹⁾ 등 전체적으로 證市환경이 호전되어, 제3기에도 전체 거래량의 79.7%를 차지한 去來所株들과 12.1%를 점한 信託株들을 중심으로 證券熱이 高潮되었던 것이다(표 1) 참조.⁴⁰⁾

경취는 거래량 증가로 막대한 賣買 및 株式名義變更[書換] 手數料 수입과 假渡金利息을 얻었다(표 2) 참조.⁴¹⁾ 제1기에 4만 2,000원대였던 純益은 제2기에 16만 5,000원, 제3기에 32만 3,000원대로 늘었고, 이는 수익률과 배당률의 상승으로 이어져 京取株의 가격을 올렸다. 1920년 12월에 주당 22원에서, 1921년 5월에 62원, 8월에 141원대로 폭등하였고, 9월에는 110원대로 주춤하였다가, 10월에 130원대까지 다시 올랐다(그림 1) 참조. 1주당 납입금(12원 50전)의 10배 이상 오른 것이다. 京取株는 거래도 활발하여 1921년 1월과 2월에는 전체 거래량의 각각 38%를 점하였으나 8월에는 58.9%, 9월에는 69.5%에 달하였다.⁴²⁾ 京取株가 최고 人氣株로서 장세를 주도하였다.

好況 場勢는 京取의 關聯機關들에도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우선 京信은 담보대출의 증가로 이자수입이 늘고, 단기거래의 확대로 日步·代引料와 信託手數料 수입이 증가하였다.⁴³⁾ 이에 京信株의 가격은 6월 30일의 42원대와 7월 15일의 44원대에서 7월 30일 89원대, 8월 14일 125원대, 8월 31일 122원대로 폭등하였으며, 9월 16일에 100원대로 주춤하였다가, 9월 30일에는 다시 119원대로 올랐다.⁴⁴⁾ 이런 가운데 납입자본이 25만 원에 불과하였던 京信은 단기거래 개시 후의 貸出과 代引[代理引受] 확대로 자금압박을 받기 시작하였다. 경

39) 동아일보 1921. 6. 4, 6. 5, 6. 6, 매일신보 1921. 6. 7, 6. 13.

40) 去來所株의 내역은 京取株, 安取株, 大株新株, 仁取株(1만 8,000주), 東取新株(4,305주), 上取株(735주), 連取株(10주)이고, 信託株는 京信株, 京信新株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표 1>, 中村郁 [24] pp. 80~85 참조.

41) 假渡[早受渡]란 대개 代金假渡를 말한다. 賣渡者가 受渡期日 前에 京取에 주식을 제공하고 代金을 받아 가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는 證券假渡라고 부른다. 이런 경우 京取는 자신이 앞당겨 지급한 代金과 株式에 대한 利息을 받았다.

42) 中村郁 [24] pp. 77~78.

43) 1921년 5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京信의 日步·代引料 수입은 약 27만 원, 信託手數料 수입은 약 5만 원이고, 擔保貸出利子(貸出 531만 원, 回收 313만 원, 殘高 217만 원) 수입은 1만 4,412원이다. 월별로는 7~9월에 집중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中村郁 [24] pp. 33~37.

44) 매일신보 각 일자의 주식시세표.

〈표 2〉 京取의 收入구성

(단위: 圓)

	賣賣 手數料	株式名 賣賣料 手數料	預金 利息	債權 利息	貸付 利息	代引 日歩	雑益	純利益	配當率 (%)
1920.11	14,795	1,073	97,483	178			1,150	42,133	8.7
1921. 5	208,824	1,163	14,164	19,527			3,039	165,145	30.0
1921.11	482,573	1,632	14,700	17,979			4,352	323,841	60.0
1922. 5	264,954	951	6,181	10,695			46,410	114,245	25.0
1922.11	165,066	733	2,037	923			41,158	80,929	20.0
1923. 5	167,725	838	2,320	4,360	28,886	12,792	43,740	771,990*	50.8
1923.11	91,335	424	2,416	10,100	20,413	14,562	48,840	83,074	10.0
1924. 5	91,997	445	5,394	5,973	14,194	16,858*	28,482	67,957	8.0
1924.11	43,895	211	1,325	3,393	11,377	16,884	11,444	953	無
1925. 5	57,100	276	138	3,968	12,756	33,035	68,254	57,520	6.0
1925.11	31,646	187	123	4,089	10,503	15,530	20,387	22,437	4.0
1926. 5	96,028	369	127	3,642	13,722	47,477	9,413	72,638	10.0
1926.11	52,573	213	423	3,023	7,948	36,040	32,608	57,798	8.0
1927. 5	44,506	119	211	3,602	9,457	37,891	17,818	30,977	4.0
1927.11	53,089	191	825	2,756	10,195	14,521	18,242	32,912	4.0
1928. 5	72,993	135	1,146	991	9,163	22,683	8,920	32,643	4.0
1928.11	59,252	122	448	1,425	10,423	32,568	13,123	30,246	4.0
1929. 5	50,562	108	235	1,886	10,915	17,864	13,819	26,260	4.0
1929.11	35,971	61	1,114	445	8,604	6,525	6,143	6,078	無
1930. 5	25,339	231	1,369	257	8,983	3,983	7,055	411	無
1930.11	23,913	115	756	1,111	8,585	4,587	6,653	-20,052	無
1931. 5	43,606	116	1,089	559	4,416	4,644	11,488	15,317	2.0
1931.11	47,613	162	145	1,000	5,667	9,107	5,439	19,872	3.0

자료: 『제1~23회』 中村郁, 『株式會社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沿革誌』, 株式會社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 1923. 京信合併剩餘金 64만 3,326원과 京信引繼營業利益 2만 8,817원을 포함한 액수임. '代引日歩' 欄의 * 표시 이하는 원래의 항목 이름이 立替金日歩임. 1921년 상·하반기, 1923년 상반기의 배당물은 특별배당금 1할, 4할, 4할을 포함한 것임.

신은 '代引을 半減'하고 '日步를 계속 引上'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였으나, '熱狂한 市民'들은 8월 중순 이후에도 증시로 몰렸다.⁴⁵⁾ 결국 경신은 9월 초 식에 50만 원의 貸與를 요청하여 거절당하자 당분간 모든 代引을 중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여 이를 仲買人組合에 통지할 정도였다.⁴⁶⁾

이에 京取 주변에서는 京信의 자금을 확충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첫째는 增資案으로서 경취의 중매인이자 京信의 대주주인 新田耕市, 小杉謹八 등이 增資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와 증역회의 개최를 요구한 것이 그런 예였다.⁴⁷⁾ 그러나 增資案은 법규상 기존의 미납자본금을 전액 납입한 후가 아니면 새로운 증자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둘째의 방안으로서 미납자본금을 추가 납입받는 방안이 제론되었다. 그리고 이는 1921년 7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각각 25만 원의 미납자본금을 추가 납입받음으로써 현실화되었다.⁴⁸⁾

證市의 好況은 仲買人에게도 막대한 영업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우선 이들은 호황에 따른 업무량 폭증에 대응하여 代理人(仲買人 1인당 市場代理人 1명, 當日代理人 2명)을 증원하는⁴⁹⁾ 한편, 遠隔地 주문이 아닌 경우에도 受渡期間을 1~2週로 연장하거나,⁵⁰⁾ 삼키기[吞行爲]를 하거나,⁵¹⁾ 定期去來와 類似한 行爲를 하고 투기목적으로 差金決濟를 하는 등 각종 편법거래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었다.⁵²⁾ 편법거래는 감독기관인 총독부가 그 是正을 수차 경고했고, 京取도 증역회를 열어 자율정화를 결의하는 등 여러 모로 노력하였지만 그치지 않았다.⁵³⁾ 호황으로 중매인이 큰 이익을 얻자 중매인 허가를 받으려는 자들이 속출하였다. 이에 경취는 仲買業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921년 6월에 당시 23명이었던 중매인을 30명으로 늘릴 계획을 세웠다.⁵⁴⁾ 기득권자인 仲買人組合은

45) 매일신보 1921. 8. 17.

46) 매일신보 1921. 9. 7.

47) 매일신보 1921. 8. 2, 8. 8, 8. 27.

48) 매일신보 1921. 7. 9, 8. 25.

49) 동아일보 1921. 5. 29, 매일신보 1921. 5. 29.

50) 매일신보 1921. 6. 3, 6. 11.

51) 중매인이 고객 물래 約定中인 去來의 代金이나 株式을 京取를 經유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 제공하여 거래를 종료시킨 후 고객이 지불한 日步나 逆日步를 자신이 받아 차지하는 행위이다.

52) 매일신보 1921. 6. 3, 6. 11.

53) 매일신보 1921. 6. 3~4, 6. 11, 8. 2, 8. 30~31.

〈표 3〉 京取의 仲買人組合員

이름	허가일~폐업일	이름	허가일~폐업일
田中友吉	1920. 7. 31~18기	趙鎮崑	1921. 1. 11~11기
近藤修	1920. 7. 31~1920. 12. 10	立木要三	1921. 1. 25~1922. 9. 18
川崎良太郎	1920. 7. 31~8기	洪鶴杓	1921. 12. 28~7기
高松清太	1920. 7. 31~1922. 11.3	中村伍藏	1921. 12. 28~9기
古閑豊記	1920. 7. 31~1921. 1.8	李章魯	1921. 12. 28~1922. 11. 3
池田準太	1920. 7. 31~7기	中河原重吉	1921. 12. 28~1922. 11. 3
櫻谷與三郎	1920. 7. 31~6기	橋下權作	1921. 12. 28~8기
白井友之助	1920. 7. 31~	白樂三	1921. 12. 28~
篠崎文三郎	1920. 7. 31~1920. 11. 24	市川幸次郎	1921. 12. 28~19
井口陸造	1920. 7. 31~8기	坂田爲一	1922. 8. 22~7기
犬島新作	1920. 7. 31~9기	閔溶鎬	1922. 9. 14~11기
新田耕市	1920. 7. 31~	定岡富二	1923. 4. 11~16기
西村元	1920. 7. 31~1920. 10. 22	成清竹松	7기~
土岐賢一	1920. 7. 31~1920. 11. 9	秋吉正夫	9기~9기
和田友太郎	1920. 7. 31~1920. 10. 28	朴文尙	9기~11기
吉見岩吉	1920. 7. 31~12기	大林淺市	10기~
塚野季三	1920. 7. 31~7기	田中道太郎	11기~
中津留孫市	1920. 7. 31~7기	魚亨善	11기~13기
有田長	1920. 7. 31~15기	古川陸治	12기~19기
朝井三郎	1920. 7. 31~1920. 8. 23	正崎長之助	12기~
三好喜六	1920. 7. 31~1921. 1. 29	京城證券(株)	13기~
南源兵衛	1920. 7. 31~13기	津田光藏	13기~14기
方奎煥	1920. 7. 31~1923. 4. 23	松山主計	13기~
權順承	1920. 7. 31~1922. 10. 16	立山榮吉	17기~
洪殷柱	1920. 7. 31~	山口恒太郎	18기~
金應龍	1920. 7. 31~20기	(株)德泰公司	19기~
金潤秀	1920. 7. 31~20기	南相璿	20기~23기
李靑	2기~13기	古野義行	21기~
北村友一郎	1921. 1. 11~7기		

자료: 『제1~23회』, 中村郁, 『株式會社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沿革誌』, 株式會社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 1923, pp. 73~75. 定岡富二, 南相璿은 除名, 秋吉, 津田은 認可만 받고 營業은 하지 않은 듯함. 몇 期로만 표시한 것은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임. 공란은 營業증인을 말함.

54) 開場 때 27명이었던 중매인은 그 후 거래부진으로 폐업자가 늘어 1920년 11월에는 22명으로 줄었고 好況이던 1921년 상반기에도 23명에 불과하였다. 『제1·2회』.

이에 반발하였지만 당국은 호황으로 업무가 늘었고, 증매인 영업권에 1만 원 정도의 권리금까지 붙어 신청자가 30여 명에 달했던 데에다 이들이 거래은행까지 동원하며 로비를 벌이자 그 해 12월 28일에 仲買人 7명을 증원하였다(표 3) 참조).⁵⁵⁾

한편 京信의 호황은 信託會社の 설립 붐도 가져왔다. 이는 주로 京仁지역의 일본인 유력자들이 주도했는데 배경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證市資金 공급을 명분으로 하여 有望業種인 信託業에 진출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향후 京取가 정식 證券去來所로서 '公許'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京信의 위상도 크게 격상될 것이므로 차제에 信託會社를 세워 이를 京信과 합병시킴으로써 향후 경취가 정식 去來所로 승격될 경우에 미리 대비한다는 것이었다.⁵⁶⁾ 1921년 6월에 在京 일본인 유력자이자 財界元老였던 梶原末太郎등이 京信만으로는 현재의 '膨脹'된 證市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없다면서 자본금 100만 원(25만 원 납입)의 신탁회사를 세워 證市에 자금을 공급하고 추후 이를 京信과 합병시키려 하였던 것이 그런 예였다.⁵⁷⁾

신탁회사 설립은 그 후에도 계속 모색되었다.⁵⁸⁾ 투자자들이 京取의 호황, 京信의 고수익, 銀行圈의 증권금융 警戒 등을 배경으로 個人 금융업자의 돈까지 끌어들여 주식투자를 함에 따라 京仁지역에서 “상당수의 個人 信託機關들이 特設되어 不動産, 商業資金까지 株式資金化하는”⁵⁹⁾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었

55) 매일신보 1921. 6. 19, 10. 4. 당국은 仲買人 出願者의 人物, 資産, 經歷, 性行 등을 철저히 調査하였다. 예컨대, 1923년 9월에 大林淺市가 仲買人 願書, 履歷書, 財産調書, 身元證明書, 戶籍謄本 등을 첨부하여 仲買人 營業 認可를 신청하자 京取는 帝國興信所, 商業興信所를 통해서 그의 履歷(香川縣立商業學校卒, 大阪商船入社, 京城에서 綿糸布仲買業 등), 財産(第一銀行 예금 8,824원, 大株新株 100주 7,900원, 仁取新株 150주 3,650원, 朝鮮商銀2新株 80주 800원, 貸金 3,000원)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였고, 총독부는 이를 토대로 심사한 후 그에게 仲買人 認可를 내주었다. 『檀紀4257~4263年 商工甲種記錄 제9호 京取仲買人營業許可書類』.

56) <1922. 12. 18. 株式會社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及京城證券信託株式會社合併ニ關スル件>(이하 <1922. 12. 18. 合併ニ關スル件>으로 표기).

57) 매일신보 1921. 6. 18. 京取의 중역들은 京信이 창립 2개월에 불과하고 자금결핍도 심하지 않다며 이에 반대하였다. 매일신보 1921. 6. 26.

58) 매일신보 1921. 8. 8.

59) 매일신보 1921. 8. 17.

다. 이런 가운데 1921년 8월 吉田秀次郎 등 仁川財界의 일본인 元老 31명은 자본금 200만 원으로 朝鮮信託(株)의 설립을 발기하였다.⁶⁰⁾ 9월에는 京城의 中村再造, 齊藤久太郎, 梶原末太郎, 市川肇, 三好和三郎, 釜山の 尹明殷, 尹顯泰, 金錫準, 大連의 加藤直輔, 만주 奉天의 佐白直平과 安東의 原田市松 등이 자본금 100만 원으로 京城現株取引信託(株)의 설립을 발기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이 회사의 창립과 더불어 자본금 400만 원으로 第2現株取引信託(株)을 설립하여 이 두 회사를 합병할 방침까지 세웠다.⁶¹⁾ 京仁지역에 신탁회사 설립 붐이 일었던 것이다.⁶²⁾

京仁 경제계에 信託事業이 발흥하고 있다. 朝鮮信託會社, 京城競賣信託會社, 京城現物取引信託會社는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는 京信의 업적에 비추어 信託事業이 有望하다고 본 때문이며, 또 최근 창립된 京城穀物信託株式會社가 성황을 보인 때문이다. … 時代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株式市場의 取組〔賣買契約〕旺盛에 따라 京信은 資金不足으로 代引拒絶을 하고 日歩를 高하여 賣買調節을 하는 등 신탁회사의 自己資本 부족은 否定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景新과 京城穀物信託은 각각 京取와 正米市場의 보조기관이나 이들 신설 신탁회사는 소위 獨立會社인 만큼 營業上 自由도 많을 것이다. 요컨대 신설 信託會社는 각자의 特長이 있는데 經營者가 手數料 위주로 堅실한 방침을 택해 思惑〔投機〕賣買를 하지 않으면 2~3할의 수익은 곤란하지 않을 것이라고 信託業界 사람들은 말한다.⁶³⁾

60) 萩谷篤夫, 加來榮太郎, 河野竹之助, 內海叔郎, 後藤連平, 堆浩, 矢上丑之助, 坂倉伊平, 美濃谷榮次郎, 白神專一도 참여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仁川의 朝鮮信託合名會社(1920. 12 설립, 자본금 1만 원, 土地家屋賣買仲介業)의 社員들로서 이 회사를 모체로 朝鮮信託(株)을 설립할 예정이었다. 매일신보 1921. 8. 30, 9. 12, 中村資良 [25] 1921년판, p. 27.

61) 동아일보 1921. 9. 18, 매일신보 1921. 9. 26, 9. 30, 10. 25, 10. 29. 第2現株信託의 창립중역은 취체역 中村再造, 鹽川孝吾, 市川肇, 尹命殷, 尹顯泰, 梶原末太郎, 三好和三郎, 감사역 秋吉富太郎, 金錫準 등이었다. 동아일보 1921. 11. 29.

62) 이 밖에도 1921년 10월 현재 京城證券信託(자본금 100만 원), 京城穀物信託(100만 원), 京城商社信託(50만 원) 등이 창립되었고, 東亞信託(500만 원), 漢城信託(100만 원), 日鮮信託, 京城綿絲布信託의 설립이 추진중이었다. 따라서 그 해 말에는 신탁회사 공칭자본금이 약 2,000만 원에 달하여 '株式界는 資金이 율뻑'해지고, 은행은 신탁회사에 고객을 빼앗길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 1921. 11. 1, 12. 12.

63) 매일신보 1921. 9. 26.

3. 證市波動과 長期休場

1921년 5월부터 京取株등을 중심으로 株價가 폭등하며 거래량이 6월에 47만 주, 7월에 51만 주, 8월에 62만 주로 過熱양상을 보이자(그림 1) 참조), 전문가들은 8월 초부터 증시에 '警戒의時機'가 왔음을 경고하였다.⁶⁴⁾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로였다.⁶⁵⁾ 그러나 중매인들은 人氣株인 京取株의 買入, 賣渡세력으로 나뉘어 분주하게 이합집산하면서 '實際의需給을無視'한 投機매매를 '度を 넘게' 지속하였다.⁶⁶⁾ 이런 가운데 9월 8일 京取에서는 개장 후 처음으로 대규모 解約[解合] 사태가 일어났다.⁶⁷⁾ 그리고 이는 9월 28일에도 재발하였다.⁶⁸⁾ 그럼에도 경취주 가격은 계속 올랐다.⁶⁹⁾ 당연히 중매인들의 경취주에 대한 매입, 매도 攻防도 가열되었다.

그리하여 10월 3일에는 京取株의 매매를 둘러싸고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受渡不履行 사태가 일어나 立會가 중단되었다.⁷⁰⁾ 다음 날인 4일도 마찬가지였

64) 매일신보 1921. 8. 5.

65) 1921년 7월 말 식은, 조선실업은행, 조선상업은행 각 본점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액은 각각 122만 원, 138만 원, 102만 원이었다. 그런데 8월 말에는 증시의 엄청난 호황에도 불구하고 각각 112만 원, 136만 원, 122만 원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 은행들이 증권금융에 警戒태세를 보였던 것이다. 동아일보 1921. 9. 12, 매일신보 1921. 8. 17.

66) 동아일보 1921. 6. 5, <1923. 12. 18. 短期去來>에 부속된 <案ノ二. 殖産局長-京畿道知事宛. 1924. 1. 11 發送>(이하 <殖産局長-京畿道知事宛>로 표기).

67) 경취주 買入을 주도했던 중매인 中津留孫市가 資金不足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자 賣渡側 중매인 川崎良太郎(5,000주), 新田耕市(4,000주) 등에게 앞서 買約定했던 경취주 9,000주를 株當 105圓에 해약하자고 요구하였고, 이들이 株當 97원 내지 98원을 고집하여 결국 101圓에 解合하였다. 동아일보 1921. 9. 11.

68) 경취주를 集中買入했던 중매인 川崎良太郎, 中津留孫市와 이를 매각했던 중매인 新田耕市 사이에 경취주 1만 5,000주의 해약이 이루어졌다. 동아일보 1921. 9. 29.

69) 9월 8일 109원, 9월 19일 107원 90전, 9월 27일 前場 123원 90전, 9월 28일 127원 30전, 9월 29일 129원 132원 10전, 9월 30일 132원 70전, 10월 3일 前場 127원 10전, 10월 4일 前場 137원이었다.

70) 앞서 경취주를 賣渡해 왔던 중매인들은 이 날 前場에도 계속 매도에 나서 경취주의 短期去來物은 전날보다 12원가량 하락한 118원 90전에, 今週物은 16원가량 하락한 117원 10전에, 來週物은 17원가량 하락한 116원 30전에 前場을 마쳤다. 이에 그 동안 줄곧 買入 注文을 해 왔던, 따라서 資金餘力이 消盡되어 증거금—株價變動幅이 클 때 납부하는 追證據

다.71) 受渡不履行과 休場사태가 이틀간 계속되자 京取사장 釘本은 중매인조합의 위원장 井口陸造, 부위원장 白井友之助, 賣渡側 중매인 川崎良太郎, 中津留孫市, 有田長, 買入側 중매인 新田耕市, 犬島新作, 塚野季三 등을 불러 중재하였고, 중매인조합도 대책을 숙의하였다.72) 그러나 受渡不履行 자금이 274만 5,650원이나 된 데에다 양측의 이해가 엇갈려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경취는 10월 6일 후장부터 京取株를 뺀 나머지 주식의 거래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거래가 원활할 리 없었다. 京取와 京信에 대한 비난이 고조된 가운데,73) 10월 18일 이후에는 여타 株式의 立會마저 중단되었다.

京取의 休場은 그 후 사실상 한 달 여나 지속되었다. 이에 총독부는 물론이고 조선은행, 식은 등 銀行圈도 證市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경고하며 수습을 촉구하였고, 출입기자단도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압박하였다.74) 京取 관계자들은 이런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京取株決濟調停委員會'를 조직하여 수습에 나섰다.75) 그리고 10월 말에는 문제의 受渡不履行 자금 가운데 73만 1,970원을 買入側 중매인들에게 부담시키는 한편 중매인 全員이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그 명의로 京信에서 201만 3,680원을 借入하여 나머지 受渡不履行 자금을 모두 결제하기로 합의하였다. 11월 1일 중매인들은 京取사장 釘本, 京信사장 天日 등이 참석한 가운데 仲買人組合 總會를 열어 <신디케이트 組織에 關한 協定書>와 <受渡履行覺書>에 서명하였다.76) 식은, 조선실업은행,

金 — 납부가 어려워진 중매인 川崎良太郎등은 顧客保護를 내세우며 1주당 112원에 解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매도측 중매인들은 1주당 85원 내지 95원을 요구하며 불응하였다. 당시 언론이 '川崎殺', '恨時勢', '妬時勢'이라고 표현한 대로 매도측 중매인들이 '聯合賣協定'을 맺어 매입측 대표 川崎良太郎을 집중 공략했던 것이다. 동아일보 1921. 10. 4.

71) 4일 前場에서 川崎良太郎은 전날 자신이 買約定했던 경취주(1만 7,000여 주)의 60% 가량을 自派인 매입측 중매인들에게 1주당 110원에 떠넘겼고[肩代], 일반고객들도 전날 휴장 사태까지 몰고 간 매도측에 반발하여 買受勢로 돌아섰다. 따라서 이번에는 경취주 가격이 폭등하며 매도측이 70만 원 내지 80만 원의 追證據金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4일 後 場이 휴회되었다. 동아일보 1921. 10. 5, 매일신보 1921. 10. 5.

72) 동아일보 1921. 10. 6, 매일신보 1921. 10. 8.

73) 동아일보 1921. 10. 7~8, 10. 13, 10. 19.

74) 매일신보 1921. 10. 8, 동아일보 1921. 10. 8, 10. 9.

75) 매일신보 1921. 10. 8, 동아일보 1921. 10. 8, 10. 11~12, 10. 15.

76) 상세한 내용은 中村都 [24] pp. 41~47.

조선상업은행 등 은행권도 證市를 재개하여 ‘朝鮮株價의 公定時勢를 일층 鞏固히’ 함으로써 ‘朝鮮財界를 救濟’한다는 명분을 들어 京信에 決濟資金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조선은행과 총독부도 이를 승인하여,⁷⁷⁾ 11월 7일 前場부터 경취주를 제외한 모든 上場株式의 거래가 재개되었다. 11월 14일에는 京取株의 거래도 재개하였다.

IV. 1922년부터 1931년까지의 長期沈滯와 解散

1. 再開場 후의 動向과 「京信」 合併

京取株의 거래가 再開된 후에도 京取의 주식거래는 以前상태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해 11월, 12월 내내 거래가 부진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京取株의 가격도 95원대에 머물렀다(〈그림 1〉 참조). 12월 중순에 滿洲의 開原 같은 僻地에서도 京取株, 安取株, 奉取株 3종의 上場株式만 하여도 무려 1만 5,000여 枚나 거래되었으나 경취에서는 여전히 거래가 한산하였다.⁷⁸⁾ 앞서의 證市波動으로 투자자들의 不信이 해소되지 않았고, 京信이 매각을 전제로 전체 京取株(6만 주)의 35%에 달하는 1만 7,280주의 경취주를 抱株한 점도 場勢를 압박하였다.⁷⁹⁾ 게다가 京信은 신디케이트에 201만 여 원을 대출한 터라서 자금여력이 없었고 株價하락으로 담보주식의 가치마저 떨어지고 기존대출도 固定된 터였다.

이에 경취는 證市浮揚을 위해서 京信의 資金여력 회복이 급선무라고 보고 京信의 增資에 나섰다. 그리하여 1921년 12월 22일에 경신은 제4회 자본금 납입을 실시하여 未納자본금(25만 원) 전액을 완납받았고, 이튿날 定期株總에서는 자본금을 100만 원에서 500만 원(납입 200만 원)으로 增資하기로 하였다.⁸⁰⁾

77) 동아일보 1921. 10. 31, 11. 5, 11. 7~10.

78) 동아일보 1921. 12. 18.

79) 京信은 중매인조합 소유의 경취주 1만 7,280주를 담보로 신디케이트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팔아 1922년 1월 말에 141만 3,280원, 1922년 4월 말에 70만 원을 각각 회수할 계획이었다. 中村郁 [24] pp. 41~42.

1922년 1월부터 실시된 增資(新株 8만 주 모집과 납입)는 제1기(1921. 5~1921. 11)에 납입자본 대비 102%, 자기자본 대비 87%의 수익률과 무려 50%의 배당률을 기록하였던⁸¹⁾ 京信의 好성적등에 힘입어 1922년 3월 2일까지 마칠 수 있었다.

경취는 이 과정에서 仲買人組合에 京信의 新株를 할당하여 그 利得(프리미엄)을 가지고 앞서 京信에서 차입했던 부채를 청산하게 함으로써 신디케이트를 해체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경취는 자신이 할당받은 京信新株 4,675주를 仲買人組合에 引受價[平價]로 넘겼고,⁸²⁾ 京信도 自社新株 2만 주를 3/4은 引受價로 1/4은 10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仲買人組合에 넘겼다. 조합은 이들 新株 2만 4,675주와 앞서 京信에 담보로 맡겼던 京取株 1만 7,280주를 몇몇 중매인에게 넘겨⁸³⁾ 그 대금으로 負債를 청산함으로써 신디케이트를 해체할 수 있었다.

增資에 따른 京信의 대출여력 확대로 證市는 1922년 1월, 2월, 3월에 거래량이 늘고 경취주의 가격도 상승하는 등 일시 회복되었다. 그러나 그 후 다시 침체하였다(그림 1) 참조). 그 해 4월에 일본의 去來所法, 去來所稅法 개정 에 맞추어 경취를 거래소로 승격시키려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때마침 新設會社가 늘면서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⁸⁴⁾ 전체적으로는 거래량이 줄고 人氣株인 京取株의 가격도 하락하였다. 1922년 초 財界의 침체로 ‘하등의 好材料’가 없었고, 때마침 朝鮮實業銀行을 비롯한 京仁지역의 8개 上場社가 자본금 납입을 실시하여⁸⁵⁾ 자금난이 심했으며, 3월에는 京取株 去來

80) 中村都 [24] pp. 30~32, 『제4회』.

81) 中村都 [24].

82) 京取는 京信의 대주주로서 할당받았던 京信新株 가운데 6,000주는 一般株主들에게 一 京取株 10주에 京信株 1주씩 一 할당하였고, 6,000주는 직접 인수하여 4,675주를 신디케이트에 分與하였다. 『제4회』.

83) 1922년 1월에 경취주 4,220주(京信新株 6,330株付)를 중매인 田中友吉, 有田長에게 50만 6,400원(單價 120원)에 넘겼고, 1만 3,070주(京信新株 1만 8,345株付)는 중매인 川崎良太郎, 新田耕市에게 156만 8,400원(單價 120원)에 넘겼다. 동아일보 1922. 1. 22.

84) 中村都 [24] pp. 51~65, 『제3회』.

85) 安東信託(납입액 25만 원, 납입기일 1월 20일. 이하 같음), 朝鮮勳業信託(100만 원, 1월 27일), 조선상업은행(25만 원, 2월 28일), 京信(100만 원, 2월 28일), 조선실업은행(75만 원, 3월 1일), 仁取(50만 원, 4월 1일), 中央物産(21만 5,000원, 미정) 등 납입자본금 총액이 397만 5,000원이나 되었다. 동아일보 1922. 1. 25, 『제4회』.

를 둘러싼 분규까지 재연하여 仲買人 中津留孫市와 川崎良太郎이 각각 4개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경취주의 短期去來가 재차 休止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⁸⁶⁾

이에 경취는 1922년 4월 20일에 賣買手數料와 委託手數料의 변경을 신청하여 5월 8일에 승인받았고, 今井修一等 株主 5명의 요청으로 7월 4일에 臨時株總을 열어 '市場振興策'을 토의하였다.⁸⁷⁾ 중역의 解任과 改選(〈표 4〉 참조)도 단행하였다.⁸⁸⁾ 7월 13일에는 경취주의 단기거래도 再開하였다.⁸⁹⁾ 그러나 사정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다(〈그림 1〉 참조). 거래주의 내용도 1921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去來所株와 信託株에 편중되었다(〈표 1〉 참조).⁹⁰⁾

京信도 마찬가지였다. 제1기에 34만 원대였던 총수입은 2기(1921. 12~1922. 5)에 27만 원대, 3기(1922. 6~1922. 11)에 20만 원대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에 純益도 25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13만 원대로 줄었다.⁹¹⁾ 총수입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短期去來의 감소로서 그에 따라 제1기에 27만 원대였던 日步·

86) 『제4회』.

87) 동아일보, 1922. 7. 6. 경성곡물신탁, 조선권업신탁의 조속한 上場, 중매인 增員, 京信新株의 短期去來 上場, 경취주의 단기거래 부활 등을 토의하였다. 경취에 相談役을 두고, 경비·인원감축 등 內部整理를 단행하며, 중역들이 중매인 善導에 적극 나서는 문제도 협의하였다. 상담역에는 古城菅堂, 富田儀作이 지명되었다. 동아일보, 1922. 7. 8.

88) 『제4회』, 동아일보 1922. 7. 5. 창립중역 12명 중 富田, 芳, 大池, 芮가 解任되고 山口, 武內, 原, 苫米가 新任되었다. 京信과 朝鮮勸業信託 출신이 각각 2명이라서 향후 株式界가 京取, 京信, 勸信의 三角同盟 형태를 취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동아일보 1922. 7. 6. 1922년 3월 현재 天日, 原은 仁取의 감사역, 古城, 大池, 荒井은 仁取의 취체역, 加來는 仁取의 前사장이자 現상담역, 淺野는 仁取의 중매인이었다. 小杉과 苫米는 朝鮮印刷(주)의 사장과 취체역이었다. 貴田忠衛 [19]. 창립시 3명이었던 한국인 중역이 芮가 물러나 2명으로 줄자 한국인 유력자들은 '創立當時의 內約'을 무시했다며 식산국장에 항의하였다. 동아일보 1922. 7. 7. 1924년 5월에 조진태마저 물러나자 한국인은 李柄學만 남았다.

89) 동아일보 1922. 7. 8~9. 총독부의 승인조건은 ① 受渡保證金과 臨時豫約金 징수, ② 計算區域 변경, ③ 京信과의 명확한 委任契約, ④ 京信으로 賣買手數料, 受渡證據金, 豫納金 징수 및 기타 보관사무의 위임 등이었다. 동아일보 1922. 7. 13.

90) 1922년 上半期の 去來所株 내역은 京取株, 安取株, 大株新株, 仁取新株, 仁取株(1만 1,695주), 上取株(40주), 東取新株(30주)이고, 信託株는 奉信株, 京信株, 京信新株 등이었다. 그 해 하반기의 去來所株 내역은 京取株, 安取株, 仁取新株, 大株新株, 仁取株(3,260주)이고, 信託株는 京信新株, 奉信株, 京現信株, 京信株(3,370주), 朝鮮穀物信託株(1,660주), 朝鮮信託株(1,520주) 등이었다. 상세한 내역은 〈표 1〉, 中村郁 [24] pp. 80~85 참조.

91) 京信의 경영내역은 中村郁 [24] pp. 33~37.

〈표 4〉 京取의 중역 명단

	칭칭사	1	2~4	5	6	7	8	9,10	11	12	13~20	21~23
釘本藤次郎	社	사	사	사	社專	社	-	-	-	-	-	-
天日常次郎	專	取	취	취	취	취	취	사	사	사	사	-
富田儀作	취	취	취	-	相	상	상	-	-	-	-	-
古城菅堂	취	-	-	-	相	상	상	監	감	감	감	감
和田常市	取	취	취	취	취	취	취	-	-	-	-	-
山口太兵衛	取	-	-	취	취	취	취	-	-	-	-	-
趙鎮泰	取	취	취	취	취	취	취	-	-	-	-	-
芳林徹	常監	監	감	-	-	-	-	-	-	-	-	-
芮宗錫	監	감	감	-	-	-	-	-	-	-	-	-
加來榮太郎	監	감	감	감	감	감	감	감	-	-	-	-
大池忠助	監	감	감	-	-	-	-	-	-	-	-	-
李柄學	監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取	취
峯尾音三郎			專	-	-	-	-	-	-	-	-	-
進辰馬			取	監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武內作平				取	취	취	취	-	-	-	-	-
原勝一				監	감	감	감	取	취	-	-	-
苫米地造酒彌				監	감	감	감	-	-	-	-	-
平岡光三郎						專	전	전	전	전	전	-
荒井初太郎								取	취	취	취	취
平井熊三郎								取	취	취	-	-
小杉謹八								取	취	취	취	社
淺野太三郎												取

자료: 『제1~23회』. 社=사장, 專=전무, 社專=사장 겸 전무, 取=취체역, 常監=상임감사역, 監=감사역, 相=상당역.

代引料 수입이 2기에는 5만 원대, 3기에는 1만 원대로 줄어든 때문이었다. 수익률도 납입자본 대비로 1기, 2기, 3기에 각각 102%, 10.1%, 6.8%로 하락하였고, 자기자본 대비로도 86.7%, 9.5%, 6.7%로 줄었으며, 배당률도 50.4%, 7.5%, 6.0%로 감소하였다. 여기에 호황 때 일어났던 각종 會社의 整理·合併 붐이 불면서⁹²⁾ 京信과의 合併압력도 거세었다.

이에 京取는 경영악화를 타개하고 내외의 合併압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1922

92) 동아일보 1922. 9. 10, 〈會社合同機運〉.

년 12월에 京信을 합병하기로 하였다. 京信의 債權·債務 등 모든 財産과 業務를 인계받아 경취의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자본금도 300만 원(총 6만 주, 납입 75만 원)에서 478만 6,100원(총 9만 5,722주, 납입 119만 7,725원)으로 늘려 영업부진을 타개한다는 것이었다. 총독부도 두 회사를 합병하여 현재의 침체국면을 타개하고 短期去來의 책임소재를 京取로 일원화함으로써 證市의 統一的 管理와 安定策(去來調節)을 수립하며, 이를 통해서 그 동안 경취를 경유해서 간접적으로 통제해 왔던 京信의 업무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아래 이를 승인하였다.⁹³⁾

경취와 경신은 1923년 4월 7일에 합병을 단행하였다.⁹⁴⁾ 이로써 京信은 창립 24개월 만에 해산되었다. 합병과 더불어 경취는 清算課를 신설하여 경신에서 취급해 왔던 株式과 代金の 立替·貸付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 그리고 京取와 仲買人 간의 短期去來 결제기간을 30일로 제한하여 단기거래에 썩워졌던 '萬年去來'라는 오명도 제거하기로 하였다. 또한 총독부가 短期去來, 週間去來를 막론하고 모든 京取株에 대한 일체의 株式·金錢 貸付를 금지하자, 경취주의 단기거래를 폐지하여 그에 따른 분규도 방지하려 하였다.⁹⁵⁾

2. 長期沈滯와 減資

京取는 1923년 4월에 京信을 합병한 후에도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그림 1〉)

93) <1922. 12. 18. 合併=關スル件>. 총독부는 합병의 문제점으로서 京取와 仲買人의 癒着에 따른 경취의 證市 및 중매인에 대한 管理監督 부실, 自社 利益을 위한 경취의 부당행위와 그에 따른 중매인 분규의 재발 등을 들었다.

94) <1922. 12. 28, 1923. 1. 17. 京取 제5회定時株總決議要項>, <1922. 12. 28, 1923. 1. 17. 京信 제3회定時株總決議要項>. 합병으로 京信의 舊株(2만 주, 50원 납입) 가운데 96주는 50원이 납입된 경취주 32주(3대 1)와, 1만 9,904주는 12원 50전이 납입된 경취주 1만 7,914주(10대 9)와, 新株 8만 주(12원 50전 납입)는 12원 50전이 납입된 경취주 1만 7,777주(4.5 대 1)와 각각 교환되었다. 京信株主에게 경취주 3만 5,722주를 교부한 것이다. 이로써 경취의 납입 자본은 44만 7,725원이 증가한 119만 7,725원이 되었다. 中村郁 [24] pp. 27~28, <京株제288호 1923. 1. 18.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社長 釘本藤次郎, 朝鮮總督府男爵齋藤實殿, 定款改正ノ件申請>.

95) <1923년 商第13號 京取市場及信託會社合併許可條件>, <殖産局長-京畿道知事宛>, <1922. 12. 18. 合併=關スル件>.

참조).⁹⁶⁾ 이에 京取는 그 해 5월에 京取株의 단기거래를 폐지하고 대신 週間去來의 기간을 15일에서 1개월로 늘려 달라고 요청하여 승인받자 6월 30일부터 이를 長期去來라는 이름아래 15일씩 2기(當限, 先限)로 나누어 각각 立會하였다.⁹⁷⁾ 나아가 경취는 그 해 6월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제2회 자본금 납입(1주당 2원 50전)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서 이미 12원 50전이 납입된 경취주 9만 5,690주에 대해서 1주당 2원 50전씩 모두 23만 9,225원의 特別配當金을 지급하였다.⁹⁸⁾ 이로써 경취의 납입자본은 119만 7,725원에서 143만 6,950원으로 늘었다.

그런데 경취는 1923년 9월의 관동대지진에 따른 震災恐慌의 영향으로 그 후 더욱 침체하였다(〈그림 1〉 참조). 경취주의 단기거래를 폐지한데다, 京信을 합병한 후에 京取가 自社株 2만 여 株를 매각을 전제로 소지하고 있던 점도 株價를 압박하였다. 이에 경취는 그 해 11월부터 證市浮揚을 위한 두 가지 주목할 조치를 추진하였다. 첫째는 1924년 1월 4일부터 경취주의 短期去來를 復活하기로 한 일이었다.⁹⁹⁾ 총독부의 승인배경은 두 가지였다.¹⁰⁰⁾ 하나는 證市부양을 위해서였다. 총독부는 경취가 한국 유일의 有價證券 標準價格 決定기관으로서 一般財界의 先驅역할을 수행중이며, 한국의 재계와 산업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치

96) 총독부는 京取가 京信을 합병하고 京取株의 短期去來를 폐지할 경우 비록 총거래량은 줄겠지만 경취주의 週間去來와 여타 주식의 短期去來가 늘고 經費도 줄어 약 20%의 배당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1922. 12. 18. 合併=關スル件〉.

97) 〈1922. 12. 京城證券信託會社ノ合併ニ伴フ取引改善要旨, 京取 釘本藤次郎〉, 『제7회』.

98) 『제6회』, 中村郁 [24] pp. 27~28.

99) 경취주의 단기거래에 필요한 代金과 株式의 立替·假渡가 부활 재개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1923년 11월 10일에 신청하여 12월 24일 인가받았다. 〈1923. 12. 24. 總督府許可. 株式會社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ニ於ケル同社株式ヲ短期取引ニ上場スル件〉, 『제8회』.

100) 〈殖産局長-京畿道知事宛〉. 승인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① 去來의 清算과 其他 사무는 京取가 담당한다. ② 代金과 物件의 立替 假渡한도는 7,000株이며 그 변경은 총독부 승인을 받는다. ③ 決濟의 연장은 1개월이며 交換 假渡의 決濟期限도 같다. ④ 京取株의 代用價格은 市價범위에서 정한다. ⑤ 諸계산금은 정관과 영업세칙대로 징수한다. ⑥ 경취주의 去來高, 約定高를 살피 證據金遞増과 豫納證據金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 ⑦ 前場과 後場의 株價·賣買高, 京取株 단기거래의 立替·假渡額과 株數 등은 매일 총독부에 보고한다. ⑧ 賣買證據金, 기타 諸計算金 등을 期限내 납부하지 않은 仲買人(이름, 금액, 사유), 定款과 營業細則에 따라 處分받은 중매인(처분요령과 사유), 경취주의 代用價格 결정과 변경, 豫納金 징수와 관련된 賣買約定限度의 결정 변경 등은 총독부에 지체없이 보고한다. ⑨ 以上을 違反하거나 監督上 필요한 경우 京取株의 短期去來를 폐지할 수 있다.

기 때문에, 증시회복을 ‘財界의 自然的 推移’에만 맡길 수 없다고 보았다. 다른 하나는 일본의 改正거래소법이 거래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주식의 대량 신속 정확한 거래를 위해서 長期去來를 短期去來·實物去來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이는 현물시장인 경취의 설립취지에도 부합되는 일이므로 차제에 단기거래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京取의 子會社로서 京城證券金融社(株)를 설립하여, 京信을 합병한 이래 京取에서 抱株해 왔던 경취주 2만 1,932주를 이 회사로 넘겨 처분하기로 한 일이었다.¹⁰¹⁾ 당시 경취의 證券金融社 설립배경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京取의 京取株 抱株가 商法の 自社株 所有禁止 조항에 저촉된다는 점이었다. 다른 하나는 경취가 매각을 전제로 경취주를 소유한 사실 자체가 證市를 압박하였으므로 차제에 이를 ‘鮮內各地에 分散’ 처분함으로써 ‘株式界를 好調’로 이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¹⁰²⁾ 이에 경취는 1923년 11월 28일 자본금 5만 원(1,000주, 납입 1만 2,500원)의 京城證券金融社(株)를 설립하였다. 사업목적은 유가증권 擔保 貸借와 京取株의 처분 등으로 정하였고, 天日常次郎(사장), 平康光三郎(상무), 原勝一(취체역), 進辰馬(감사역) 등 京取의 中역들로 中역진도 구성하였다.¹⁰³⁾

증시는 경취주의 단기거래 재개와 京城證券金融社 설립 후에도 회복되지 않았다. 증권금융사의 경취주 매각도 겨우 1,500주만 처분되어 여전히 證市를 압박하였다. 이에 경취의 大株主會는 減資에 의한 京取株 消却을 결의하였고, 1924년 6월의 정기주총에서는 앞서 京城證券金融社와 체결했던 경취주 1만 5,722주(1주당 15원 납입)¹⁰⁴⁾에 대한 讓渡契約을 解除하고 자본금 478만 6,100원을 400만 원으로 — 총주식은 9만 5,722주에서 8만 주로 — 납입자본은 143만 6,950원에서 120만 1,120원¹⁰⁵⁾으로 減資하여, 그 剩餘金 23만 5,830원으로 문제

101) 朝鮮取引所 [22] 〈證券金融社 設立과 解散 및 京取의 減資〉.

102) 〈殖産局長-京畿道知事宛〉.

103) 株式은 釘本藤次郎(150주), 天日常次郎(80주), 平康光三郎, 原勝一, 進辰馬, 平井熊三郎, 小杉謹八, 李柄學, 古城普堂(이상 각 70주) 등 13명이 소유했는데, 위의 인물들은 모두 京取의 中역이었다. 中村資良 [25] pp. 55~56.

104) 경취의 自社株 2만 1,932주(1주당 42원 評價) 가운데 1,500주는 증권금융사를 통하여 처분하였고, 4,710주는 증권금융사에 매각하여 1만 5,722주만 남았다.

105) 50원 納入株 32주 1,600원, 15원 납입주 7만 9,968주 119만 9,520원 등이다. 『제9회』. 公稱, 納入자본금은 그 후 변동이 없었다.

의 1만 5,722주를 銷却하기로 하였다.¹⁰⁶⁾ 減資手續은 1924년 10월 13일에 마쳤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취의 거래량은, 1925년, 1926년경 일본과 한국의 일시적 中間景氣에 힘입어 1926년 2~3월경에 소폭 反騰한 것을 제외하고는, 1923년 초부터 1931년 말까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그림 1〉 참조). 이는 당시 일본의 株式市場도 마찬가지로였다(〈그림 2〉 참조). 長期沈滯였다. 이를 반영하여 경취의 배당률도 하락하였다(〈표 2〉 참조). 1924년 하반기에는 창립 후 처음으로 無配當을 기록하였고, 그 후에도 1926년 상·하반기의 10%, 8%를 제외하고는 1929년 상반기까지 4% 배당에 그쳤다. 1929년 하반기부터 1930년 하반기까지는 다시 무배당을 기록하였다. 특히 1930년 하반기에는 창립 후 처음으로 赤字까지 보았다. 당연히 경취주의 가격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였다.¹⁰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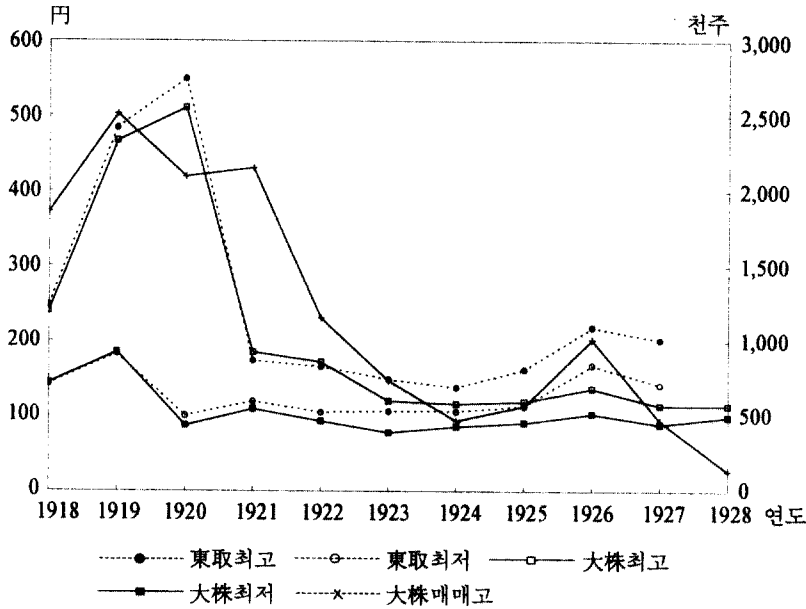
1925년, 1926년경에 잠시 中間景氣 양상을 보였던 일본경제가 1927년의 금융공황과 뒤이은 강력한 디플레이션정책[井上財政], 그리고 1929년의 금본위제 복귀 등 이른바 '不況에서 不況으로'라는 1920년대의 '慢性不況'¹⁰⁸⁾에서 벗

106) 경취는 證券金融社의 京取株 處分과정에서 1주당 4원(42원-38원)씩 6,000원, 증권금융사에 경취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1주당 27원(42원-15원)씩 12만 7,170원, 株式를 銷却하는 과정에서 1주당 27원씩 42만 4,494원 등 총 55만 7,664원의 손실을 입자, 이를 土地評價益, 별도적립금, 公納金引當殘額, 부동산소각적립금, 법정적립금 등으로 補填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1924. 9. 15. 株式會社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定款變更許可ニ關スル件〉内の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抱株處分ニ關スル要綱〉 참조.

107) 1927년에 京取에서 거래된 거래량 상위 8개 종목은 大株新株 45.5%(총거래량 대비), 東取新株 23.4%, 京取株 17.5%, 鐘新株 6.5%, 安取株 2.9%, 朝紡株 1.1%, 仁取株 1.0%, 殖銀株 0.6% 등으로 去來所株式이 90% 이상을 점하였다. 朝鮮總督府殖産局 [5]. 去來株式이 여전히 大株, 東取, 京取 등 去來所株式 위주였고, 1920년대 초와 달리, 그나마 京取株은 최대 去來株에서도 제외되었다. 京取는 당시 일본의 거래소들에서 최대 去來株였던 大株新株, 東取新株 등을 賣買하는 정도였던 것이다.

108) 梶西光速 外 [23] p. 71. 일본 全産業의 事業會社 수익률(납입자본 대비, 상반기 기준임)은 1917년 42.1%, 1918년 44.3%, 1919년 47.0%, 1920년 60.0%로 매년 증가하다가 1921년에 22.5%로 급락한 후 1923년 21.7%, 1925년 18.5%, 1927년 16.2%, 1929년 15.3%로 줄곧 감소하였다. 東京株式取引所株(東取株)의 가격도 1918년의 최고 248원, 최저 142원에서 1919년에는 최고 484원, 최저 183원으로 올랐으나, 1920년에는 최고가격은 반동공황 이전에 549원까지 폭등한 반면 최저가격은 반동공황으로 100원까지 폭락하였다. 그 후에도 최고가와 최저가는 1921년에 각각 174원, 119원, 1922년에 166원, 105원, 1923년에 149원, 106원, 1924년에 138원, 106원, 1925년에 162원, 113원, 1926년에 219원, 168원, 1927년에 202원, 142원으로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安藤良雄 [20] 100면, 宮本又郎 外 [18] p. 595, p. 597.

〈그림 2〉 東京, 大阪株式取引所株式의 가격변동과 거래량



자료: 東取는 宮本又郎 外, 『日本市場史: 米·商品·證券の歩み』, 山種グループ記念出版會, 1989, p. 595, p. 597. 大株는 鹽川藤吉, 『大株五十年史』, 大阪株式取引所, 1928. 〈諸統計〉. 東取株는 長期清算去來. 株價(최고, 최저) 단위는 圓, 賣買高 단위는 千株임.

어나지 못하였고, 1930년부터는 세계대공황으로 경기가 더욱 침체했던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중반 이후로는, 1927년에 총독부가 銀行令을 개정하여 모든 은행에 預金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준비금으로서 준비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를 現金, 地金銀, 外國通貨, 郵便對替貯金 외에 '國債, 기타 조선총독이 인가한 有價證券'으로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은행의 유가증권 소유를 부추겼던 것을 제외하고는,¹⁰⁹⁾ 이렇다할 부양책도 취해지지 않았다.

證市의 장기침체는 仲買人의 영업을 악화시켰고 그 결과 폐업자가 속출하였다. 1921년 말의 30명을 최대로 그 후 계속 줄어 1931년 11월 말의 중매인은 14명에 불과하였다(〈표 3〉 참조).¹¹⁰⁾ 창립 후 1931년 5월까지 영업을 계속했던

109) 은행령 개정은 尹錫範 外 [11] p. 249. 이 조치로 일반은행의 有價證券 소유는 크게 늘었다. 中村資良 [25] 1927, 1929년판을 대조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중매인은 白井友之助, 新田耕市, 洪殷柱 3명뿐이었고, 有力 중매인도 수시로 교체되었다.¹¹¹⁾ 이러한 영업부진은 이들의 탈법행위를 더욱 부추겼고,¹¹²⁾ 이는 투자자의 불신을 증폭시켜 경취를 한층 부진하게 만들었다.

중시의 침체는 1921년경부터 우후죽순 격으로 설립되었던 각종 證券信託會社에도 위기를 가져왔다. 이에 1922년 가을에 京仁지역의 6대 信託會社였던 京信(자본금 500만 원 : 公稱. 이하 같음), 朝鮮勸業信託(1,000만 원), 京城現株取引信託(500만 원), 京城穀物信託(100만 원), 朝鮮信託(200만 원), 京城商事信託(50만 원) 등은 차제에 '大合同'을 단행하여 산하에 調査部, 證券部, 不動産部를 둔 巨大 신탁회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¹¹³⁾ 이런 가운데 朝鮮勸業信託 社長 武內作平은 경취가 정식의 증권거래소[取引所]로 公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에 앞서 조선권업신탁과 京取의 관계를 긴밀하게 맺어 두기 위해서 스스로 경취의 취체역이 되었는가 하면 京信과 조선권업신탁의 합병을 적극 모색하기도 하였다.¹¹⁴⁾ 그러나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1922년에 자본금 1,000만 원을 가지고 한국의 산업개발, 內鮮融和, 民福增進 등을 표방하며 박영효, 민병석, 今西林三郎, 道德藏, 趙鎮泰, 山口太兵衛, 富田儀作, 新田鑛藏 같은 韓日人 유력자들을 相談役으로 위촉하는 등 큰 期待 속에서 출범하였던 朝鮮勸業信託은 1924년 2월에 자본금의 절반을 소각하였고, 여전히 부진하자 1925년 5월에 300만 원으로 재차 減資하였다.¹¹⁵⁾ 한편 在京 일본인 財界의 원로이자 최고의 資産家였던 中村再造가 畢生の 事業으로서 설

110) 期別 중매인 수는 5기 27명, 6기 26명, 7기 21명, 8~10기 18명, 11기 17명, 12~13기 18명, 14기 17명, 15기 16명, 16기 15명, 17~18기 16명, 19기 15명, 20기 14명, 21~22기 15명, 23기 14명이었다. 『제5~23회』.

111) 京取는 期別로 '優秀仲買人'을 5명씩 선발하여 표창했는데 新田耕市, 田中友吉 등 극소수를 빼고는 대부분 수시로 바뀌었다. 한국인은 金應龍, 洪殷柱가 한 차례 포함되었을 뿐이다. 경취의 일본인 株主, 仲買店과 주요 現物問屋店員들은 1922년 4월에 京城株友會를 조직하여 중시침체에 공동대책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 1922. 4. 23, <京城株友會設立>.

112) <1928. 3. 29.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定款變更ノ件>.

113) 동아일보 1922. 9. 22.

114) <1922. 12. 18. 合併ニ關スル件>. 조선권업신탁은 1922년 2월에 자본금을 納入받아 그해 4월 5일 창립하였다. 창립중역은 사장 武內作平, 상무 藤田直勝, 취체역 劉文煥, 李軫鏞, 島田俊雄, 松井伊助, 芮宗錫, 감사역 白完赫, 金溶泰, 吉田武衛, 濱田國松, 상담역 朴泳孝, 閔丙爽, 趙鎮泰 外 4인이다. 동아일보 1922. 1. 22, 4. 6, 中村資良 [25] 1923년판 p. 45.

115) 中村資良 [25] 1925년판 p. 42.

립하여 '처음에 상당한 人氣를 얻'었던 京城信託(株)¹¹⁶⁾도 재계불황, 신탁회사 濫設 등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그리하여 1923년 8월에 자본금을 350만 원으로 減資하고 京城商社信託(株)¹¹⁷⁾을 합병하여 자본금을 400만 원으로 만들었으나, 여전히 부진하자 1925년 6월 18일에 해산을 결의하였다.¹¹⁸⁾

1924년경을 轉機로 한 京取와 그 관련기관들의 이러한 長期沈滯는 民間部門의 金融資産 구성 변동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民間部門의 金融資産殘高¹¹⁹⁾ 중에서 株式이 차지한 總價額은 1920년(1억 8,000만 원대)부터 1923년(2억 7,000만 원대)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24년(2억 5,000만 원대)에 감소로 돌아서서 1929년(3억 1,000만 원대)이 되어서야 1923년 수준을 回復 上廻하였다. 民間部門의 전체 金融資産 잔고에서 株式이 점한 구성비도, 1920년대 초에는 1923년(29.2%)을 頂點으로 26~29%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24년(24.5%)부터 떨어져 20% 전후를 왕래하였고, 1931년에는 23.1%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債券(金融債, 國債, 地方債)의 구성비가 1920년 28.3%에서 1930년 49.5%로 꾸준히 증가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¹²⁰⁾

證市의 장기침체는, 주식의 流通市場과 發行市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부침한 가운데, 한국에 本店을 둔 株式會社의 총자본금액 변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즉, 한국에 本店을 둔 株式會社의 자본금 총액은 1920년(4억 원대)부터 1924년(5억 9,000만 원대)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25년(4억 1,000만 원대)에 전년 대비 31.0%나 격감한 후, 1930년(6억 1,000만 원대)이 되어서야 1924년 수준을 回復 上廻하였다.¹²¹⁾ 1923년, 1924년까지는 그나마 경취와 총독부를 중

116) 1922년 3월에 京城現株取引信託과 제2京城現株取引信託이 합병하여 자본금 500만 원의 京城信託이 되었다. 1923년의 중역은 中村再造(사장), 池田長兵衛, 梶原末太郎, 藤崎半助, 尹命殷(이상 취체역), 三好和三郎(감사역) 등이다. 中村資良 [25] 1923년판.

117) 원래 이름은 京城競賣信託(株)이다. 1921년 11월 창립 때 京城商社信託(株)으로 고쳤다. 重役은 사장 藤崎半助, 전무 池田長兵衛, 상무 中村巖 등이다. 동아일보 1921. 11. 12.

118) 동아일보 1925. 6. 16, 6. 18~19.

119) 민간부문의 金融資産殘高란 민간부문이 소유한 現金, 銀行預金, 其他金融機關預金, 株式, 債券, 郵便貯金, 無盡의 합계를 말한다.

120) 溝口敏行·梅村又次 [17] pp. 304~305.

121) 納入資本金 총액도 1920년의 1억 7,000만 원대에서 1923년 2억 6,000만 원대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1924년에는 2억 3,000만 원대로 다시 줄었고, 1929년(2억 7,000만 원대)에야 1924년 수준을 回復 上廻하였다. 朝鮮總督府 [4].

심으로 다양한 부양책이 모색되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나름대로 살아있었으나, 그 후로는 이렇다할 대책도 강구되지 않은 채 증시가 長期 표류했던 사정이 이런 식으로 반영되었던 셈이다.

3. 解散과 朝鮮取引所 설립

1920년 8월의 開場 당시에 7,256명이었던 京取의 株主는 그 후 거의 꾸준하게 감소하여 1931년 11월에는 1,612명으로 줄었다.¹²²⁾ 그리고 이들 주주의 40% 가량은 서울에 거주하였고, 일본에 거주한 일본인 株主도 전체의 10% 정도를 점하였다.¹²³⁾ 주주의 85~90%는 일본인이었고, 이들이 경취주의 80~90%를 소유하였다. 전체주주의 10~15%를 점했던 한국인 株主는 경취주의 10~20% 정도를 소유하는데 그쳤다.¹²⁴⁾ 한국인들은 한국 유일의 증권시장, 증권거래기관이었던 경취의 重役, 仲買人 구성에서 극소수를 면치 못했던 것처럼, 최고 人氣 株였던 京取株 소유에서도 이 정도 비중밖에 차지하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1924년, 1925년경부터 證市의 침체가 장기화하자, 京仁지역의 일본인 유력자들은 仁取와의 合併案을 끊임없이 제기하였다. 그러나 仁川지역 일본인 財界의 일부 有志들과 인천 주민들의 반발로 이는 쉽게 성사되지 못하였다.¹²⁵⁾ 그러나 경취가 오랜 침체에 더하여 1929년 하반기부터 연이어 무배당

122) 총주수는 開場 초에 6만 주, 1923년 상반기 京價合併 후에는 9만 5,722주였다. 1924년 하반기 減資 후에는 8만 주로 고정되어 주주 1인당 평균 所有株數가 개장 초 8.3주에서 1931년 말 49.6주로 늘었다. 소수 株主에게 집중된 것이다. 『제1~23회』. 이하 별도 註가 없는 한 같다.

123) 서울에 居住한 株主의 비중은 1925년(하반기 기준: 이하 같음) 41.7%, 1928년 39.8%, 1931년 39.9%였고, 같은 기간 이들의 京取株 所有 비중은 57.0%, 49.2%, 54.4%였다. 日本에 居住한 株主의 비중은 위의 기간 동안 8.4%, 9.6%, 10.8%였고, 이들의 경취주 점유 비중은 4.3%, 5.6%, 8.5%였다.

124) 한국인 株主의 비중은 1921년(下半年 기준: 이하 같음) 15.7%, 1923년 12.1%, 1925년 11.3%, 1927년 10.2%, 1929년 9.9%, 1931년 10.4%였고 나머지는 거의 모두 일본인이었다. 같은 기간 이들의 京取株 所有 비중은 16.1%, 22.5%, 15.2%, 11.8%, 14.7%, 20.5%이고, 나머지는 거의 모두 일본인 주주의 소유였다.

125) 京取와 仁取의 오랜 합병논의는 McNamara [28] pp. 141~164.

을 기록하고 1930년 하반기에는 赤字까지 기록하자,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결국 일제는 京取를 現物市場이 아닌 去來所 형태의 正式 證券市場, 資本市場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1931년 6월에 朝鮮取引所令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리고 1931년 12월에 京取는 仁取와의 合併契約書를 최종 수용하였다.¹²⁶⁾ 1920년대의 慢性不況, 資本主義의 全般的 危機와 1929년 말 이래의 세계대공황을 배경으로 일본경제가 國家獨占資本主義 단계로 급속하게 이행하여 간데 상응하여 한국의 유일한 증권시장, 자본시장이었던 京取는 1920년대의 오랜 침체를 거쳐 1932년 1월에 仁取와 합병하여 朝鮮取引所(자본금 659만 9,800원, 납입자본 240만 850원)의 證券部로서 개편되어 간 것이다.¹²⁷⁾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제는 1931년 6월에 朝鮮信託業令을 제정 공포하여 信託業界에 대한 대대적인 整理에도 나섰다. 그리하여 1932년 12월에는 국가자본의 주도아래 半官半民의 독점회사로서, 이른바 國家獨占資本主義 단계에 걸맞는 자본금 1,000만 원(납입 250만 원)의 초대형 信託會社인 朝鮮信託(株)을 설립하였다.¹²⁸⁾

V. 結 語

일제의 한국강점 정책은 한국의 '利源'을 개발함으로써 수탈을 극대화하는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收奪을 위한 拓殖, 開發에는 막대한 資金이 소요되었다. 이에 일제는 은행제도를 정비하여 間接金融 체제를 구축하였고, 1920년대 초에는 東아시아 全域을 포괄하는 證市網을 구축하면서 그 일환으로 1920년 8월에 한국 유일의 증권거래 기관인 京取를 개장하여 直接金融 체제도 구축하였다. 그런데 京取와 그 관련기관들은, 1921년의 일시적 活況을 제외하

126) 『제22·23회』.

127) 경취의 重役과 仲買人(〈표 3〉, 〈표 4〉 참조)은 전원 조선취인소의 중역과 證券 '去來員' [仲買人]이 되었다. 朝鮮取引所는 去來所 체제 출범에 따른 期待심리, 강력한 景氣浮揚정책 등에 힘입어 그 후 차츰 부진에서 벗어났다. 李炯眞 [13] 1992, 李明輝 [12].

128) 朝鮮信託은 高承濟 [7], 金容燮 [9].

고는, 1920년대 내내 長期沈滯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리고 급기야 1932년 1월에는 仁取와 합병하여 朝鮮取引所의 證券部로서 改編되었다. 경취는 한국 최초의 유일한 조직적 증권시장으로서 출범하였으나 有價證券의 流通·發行市場이라는, 有價證券의 標準價格 決定기관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 1920년대에는 京取뿐만 아니라 그 외곽에서 京取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證券信託會社나 여타의 一般銀行들도 경취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1910년대 후반기부터 1920년 3~4월까지 미증유의 好況을 누렸던 일본경제가 1920년 3~4월 이래의 反動공황을 계기로 急反轉한 후, 1922년 銀行공황, 1923년 震災공황, 1927년 金融공황, 1929년 세계대공황을 연쇄적으로 겪으면서 1920년대 내내 慢性不況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京取와 그 관련기관들의 변모는 1920년대에 일본과 한국의 자본주의가 처했던 危機의 실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경제의 열악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이는 1930년대 초부터 일본자본주의가 國家獨占資本主義 단계로 전환하여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그리하여 한국경제도 새로운 단계의 일본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가지 않을 수 없었던 內面의 사정을 證券市場史, 資本市場史의 측면에서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런데 1920년대에 京取와 그 관련기관들이 長期沈滯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때에는, 당시 일본자본주의의 慢性不況이나 한국경제의 열악성에 더하여 몇 가지 이유가 더 개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제가 京取를 정식 證券去來所가 아닌 現物市場으로서 운영했던 데에서 보듯이 資本市場 育成政策을 적극 실시하지 않은 것이 한 이유일 수 있었다. 동시에 일제하 한국의 금융시장이 需要追從型이 아닌 供給先導型을 띠었던 점과도 관련해서 일제가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같은 特殊金融機關을 통하여 低利資金을 공급하는 間接金融 위주의 금융정책을 취했던 것도, 企業들에게 資本市場을 통한 자본조달보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역시 한 이유일 수 있었다. 또 전체적으로 주식회사의 수가 많지 않았고 자본금 규모가 영세했으며, 1921년 가을의 대규모 受渡不履行 사태등으로 證市가 투기꾼들의 온상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된 점도 한 이유일 수 있었다. 일제하 증권시장에 관한 연

구는 향후 이 같은 假說의 事實들에 대한 검토작업으로 시야를 넓혀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자 료

1.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株), 『營業報告書』, 各期.
2. 『檀紀4253~4263年 商工甲種記錄 第8號 京取定款營業細則變更書類』.
3. 『檀紀4257~4263年 商工甲種記錄 第9號 京取仲買人營業許可書類』.
4.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0.
5. 朝鮮總督府殖産局, 『取引所關聯事項調査表』, 1929.
6. 朝取株式研究會, 『朝取』, 1939.

논 저

7. 高承濟, 『韓國金融史研究』, 일조각, 1970.
8. 김도형, “갑오 이후 仁川에서의 미곡유통구조: ‘仁川米豆取引所’의 설립을 중심으로”; 擇窩許善道先生 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刊行委員會 編, 『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일조각, 1992.
9. 金容燮, 『증보판 韓國近現代農業史研究』, 지식산업사, 2000.
10. 金周龍, 『韓國證券市場發達史』, 大韓證券業協會, 1967.
11. 尹錫範·洪性讚·禹大亨·金東昱, 『韓國近代金融史研究』, 世經社, 1996.
12. 李明輝, “植民地期 朝鮮의 株式會社와 株式市場 研究”, 성균관대학사논문, 2000.
13. 李炯眞, “日帝 강점기 米豆·證券市場 정책과 朝鮮取引所”,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2.
14. _____, “일제하 투기와 수탈의 현장: 미두·증권시장”, 『역사비평』, 가을호, 1992.
15. 洪性讚, “1920년대의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株) 研究: ‘京取’와 그 關聯機關의 설립을 중심으로”, 『經濟史學』, 22, 1997.

16. _____, “日帝下 在京 日本人의 朝鮮實業銀行 설립과 經營”, 『연세경제연구』, VI-2, 1999.
17. 溝口敏行·梅村又次 編, 『舊日本植民地經濟統計: 推計と分析』, 東洋經濟新報社, 1988.
18. 宮本又郎 外, 『日本市場史: 米·商品·證券の歩み』, 山種グループ記念出版會, 1989.
19. 貴田忠衛, 『朝鮮人士興信錄』, 朝鮮新聞社, 1922.
20. 安藤良雄 編, 『近代日本經濟史要覽』, 東京大學出版會, 1992.
21. 鹽川藤吉, 『大株五十年史』, 大阪株式取引所, 1928.
22. 朝鮮取引所, 『朝鮮取引所史』, 朝鮮取引所, 1937.
23. 楫西光速·加藤俊彦·大島清·大內力, 『日本資本主義の沒落』I, 東京大學出版會, 1960.
24. 中村郁, 『株式會社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沿革誌』, 株式會社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 1923.
25. 中村資良 編,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21, 1923, 1925.
26. 秋山滿夫, 『株式會社仁川米豆取引所沿革』, 株式會社仁川米豆取引所, 1922.
27. 向井鹿松, 『取引所の理論的研究』, 丸善株式會社, 1926.
28. McNamara, D. L., *Trade and Transformation in Korea, 1876~1945*, Westview Press, 1996.